**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본문은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첫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그를 보고 돌연 멈춰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는 그 즉시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 부름을 받은 자는 주저없이 순종합니다.

이 부르심과 순종 사이에, 다른 아무 설명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 어떤 설명을 집어넣으려 합니다.

마태는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둥.

이미 그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고 있었다는 둥.

하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마태조차 거기에 아무 설명도 끼워넣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 세리는, 그저 따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 따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 예비지식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권위가 그로 하여금 즉시 순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놀라운 프로그램을 제시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장황하게 설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가 이전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짤막한 명령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지금까지의 삶을 박차고 나와, 예수님께 그의 삶 전부를 걸라는 요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요구에 따름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자신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부탁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의 상대적 안전감에서 빠져나와 불안한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실상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지만,

지금 이 첫 부르심과 따름의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그 따름은 또한, 예견과 예측이 가능한 곳을 빠져나와 미래를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실상은 예측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믿는 사람이 순종한다”는 우리의 편견과 핑계를 여지없이 격파해 버립니다.

믿는 자가 순종하지만, 또한 순종하는 자가 믿습니다!

만약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마태가 그 즉시 따라나서지 않았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리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무력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베드로는 넘실대는 바다 위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신앙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부르심은 우리를 믿게 하는 환경으로 이끌어내는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는 부름받은 자의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이 첫 순종의 발걸음은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의 자리를 옮겨놓습니다.

독일 고백교회 목사 디트리히 본회퍼는 말합니다.

“불순종을 고집하고 제일보를 보류하는 한, 신앙은 있을 수 없다. 신앙이 있으니 외적 행동이 필요 없다고도 하지 말라. 첫 순종이 불가능한 것은 행동을 원치 않는 때문이 아니라 신앙처럼 보이는 불신앙을 고집하는 때문이다. 부족한 순종을 부족한 신앙 탓이라 하고 부족한 신앙을 부족한 순종 탓이라 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좋지 못한 하나의 도피이다. … 믿는가 – 그러면 대담하게 한걸음 내 디뎌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믿지 않는가 – 그래도 한걸음 떼어 놓아라. 이것은 명령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그가 일하던 세관을 박차고 나옵니다.

복음서 기자 누가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덧붙입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마태의 첫 순종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는” 행동을 수반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 역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베드로는 여전히 그물을 손질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나, 참 순종은 직업과 가정에 충실하면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나서라고 부르시지만 사실은 그 안에 충실히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라고.

예수님은 생계를 위해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그 말을 고지식하게 받아들여, 식구들을 위해 염려하며 일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이러한 말들 속에는 분명 옳은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가족, 소유는 모두 그 자체로 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증거해야 할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세상 재물을 많이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했으면서도 마치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에 다같이 충실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가능성은 지금 당장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심각한 죄성과 연약함을 인식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좇는 것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좇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쉽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순종하기는 더 어려워도 그 목표를 이루기에는 더 쉬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부자청년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와서 나를 따르라” (막10:21)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 누리는 역설적 행복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요청되는 것은 그런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단순하고 가시적인 순종입니다.

단호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딛으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로 고민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을 찾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57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1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부름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좋은 것을 경험하고 스스로 감격한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길이 험난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제자의 길을 마냥 신나고 즐거운 길로만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로 이어지는 고난의 길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걸 안다면, 어떤 인간이 자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함으로써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부름받았기에 갈 수 있는 길이지, 순간의 감격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임종 혹은 장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뒤에 따르도록 허락해달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부모의 장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율법의 요구와 예수님의 부르심, 즉 그가 해야할 일과 하고자 하는 일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장례는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한국인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사람 도리’라는 말이 있지요.

예를 들면 “적어도 사람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이 ‘사람 도리’에 대해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이 처한 상황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보면 마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도리도 못하는 놈”이란 욕을 얻어먹을 상황입니다.

제 대학선배 중에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장남이었습니다.

그가 선교사 나간다 할 때, 그분 어머니는 까무러치며 기절하셨다 합니다.

그 친척들은 당연히 그를 향해 “저 사람 도리도 못하는 놈”이라 생각했겠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이처럼 인간적 관점으로만 보면 사람 도리 못하는 일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이 진정 ‘사람 도리’를 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 10:37)

때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해야할 ‘사람 도리’에 관한 내 좁은 관념을 그 즉시 포기하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 ‘사람 도리’를 다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이 걸어가신 의의 길로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할 것은 겸손한 순종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먼저 말해놓고 거기에 조건을 답니다.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기약할 수 없는 먼 길 가는 사람이 가족 얼굴 한번 보고가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름에 조건이 붙으면서, 그 따름은 더 이상 순종이 아닙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늘 어떤 염려나 미련 때문에 그 일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만 잘 끝나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것만 아니어도, 무엇 무엇을 열심히 할 텐데… “

하지만 제자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일단 순종하여 나아가고, 그 뒷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이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권위’나 ‘순종’ 같은 단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권위’나 ‘절대’에 관한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어진 권위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로 인해 실망과 아픔을 경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타나는 희한한 현상 중 하나는, 그렇게 권위적인 이슬람교가 번성하고, 잘못된 권위를 휘두르는 이단 사이비 종교가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머리로는 권위를 부정하려 하지만, 마음으로는 진정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권위를 갈망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권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길은 생명과 구원의 길, 사랑과 은혜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더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아직 없을 때에도, 진리로 다가오시는 그분의 부드러운 권위에 의지하며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올 때,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그 단순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 사랑과 은혜의 길로 부르셔서, 우리를 복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 날마다 순종으로 당신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신실하신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